

방언 연구가 나아갈 방향

양민호

성결대학교 동아시아물류학부 조교수

1. 서론

방언 연구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크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방언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관한 많은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언어 형성기에 습득한 언어적 특징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한다. 대체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10대 초반까지 한 지역에서 살며 방언적 특징을 습득한 사람은, 다른 방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나이를 먹어도 큰 변화 없이 자신의 말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어 형성기가 지난 후에도 일정 부분 다른 방언적 특징을 가진 말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예전의 인적 접촉으로 인한 전파만이 아닌 현대 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전파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는 정보기술(IT)이 발달하여 말의 전파 방법이 예전과는 매우 다르다. 일본에서는 '땅을 기어 전파되는 것'과 같은 예전 방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전파라고 일컫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말들로 인해 예전의 지역별 언어

차이보다 세대 간 언어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일본의 경우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힘이 있는 지역의 말(간사이 방언)은 공통어와 접촉하여 변화해 가면서도 완전하게 공통어화하지 않고 지역 정체성을 잘 유지해 간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지역 방언의 특징을 유지하기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 지역 방언의 억양이나 문말 표현 일부는 유지되기 쉬운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숙지하고 본 특집 호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방언 연구 방향을 토대로 향후 방언 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2. 결론

현재의 방언 연구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지역 방언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 방언은 많은 연구자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일차원적인 어형 보존에 의미를 두거나 기술적 연구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렇지만 공통어가 보급됨에 따라 방언형이 살아남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역어 보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어형의 연구는 등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방언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의 방언 연구도 필요하다. 향후 방언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역 방언 연구를 지속하면서 이러한 세대 간의 소통과 관련된 문제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방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일본 방언 연구 동향

2.1.1. 위기 언어, 위기 방언에 관한 관심

위기 언어 또는 위기 방언이라는 시점에서 지역 언어, 지역 방언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어의 보존 사례를 기록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이를 기술하고 분석할 연구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방언에 대한 일본의 보존 노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2.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더 활발해진 방언 연구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는 피해 지역에 대한 의료 활동 및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어휘집이나 방언 해설 소책자 작성 등 긴급성을 요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연구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피해 지역의 방언 보호와 기록을 목적으로 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그 당시에 ‘방언을 살린다, 방언으로 살린다’라는 문구가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2.1.3. 연구자 간 공동 연구와 지역 주민과의 협동

일본에서의 방언 연구는 더욱더 끈끈해진 연구자 간의 공동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인접 학문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대규모 언어지리적 연구도 가능하며, 새로운 시점의 성과들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위기 방언의 기술과 보존은 개인 연구자의 연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언어의 기록과 계승은 지역 사회 구성원과의 협동을 통하여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2.2. 한국 방언 연구 동향

한국에서도 위기 방언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지역어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고 권역별 지역어를 조사해 전사 자료를 펴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 방언 조사 방향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강정희(2003)는 ‘방언 변화와 방언 연구의 방향’에서 향후 방언 연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음과 같은 방언 연구의 근본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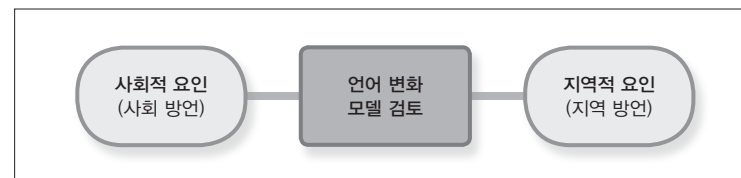
첫째, 방언 조사 방법 문제에 있어서 언제까지 전통 방언학의 방법만으로 방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자료 해석 문제에 있어서 공시태인 방언 자료 중 ‘보수형’을 문헌어로 소급할 수 있는 어형과 해당 지역에서 자체 발생한 어형이라고 할 때 무엇이 보수형이고 접촉형인가를 조사자가 과연 분별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미 소멸해 버린 보수형이 개신형과 접촉해서 형성된 제3의 혼성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은 지역 방언 연구 시 끝까지 고민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어형 발생에 관한 자료 해석은 일본의 사례처럼 연구자 간의 공동 작업과 지역 주민과의 협동을 통해 진행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언에 대한 입문서 및 개설서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종합적 연구, 음성/음운, 어휘, 문법, 사전/자료 등과 같은 방언 관련 서적뿐 아니라 방언과 관련된 사회언어학, 응용언어학 연구서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만일 방언 관련 자료 및 서적 등이 풍부해지면 방언 연구의 후속 세대들이 양성되어 지

역 방언형의 분류 및 판단도 더욱 활발해지리라 생각된다.

앞서 지적했던 조사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방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 방언학의 조사 방법에 사회 방언의 문항을 넣어 조사함으로써 지역적 차이와 더불어 사회언어학적 변인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2014년에 실시한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 중 평택 조사와 이듬해인 2015년에 실시한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에서는 지역 방언 항목에 사회언어학적 변인을 결합하여 조사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



[그림 1] 지역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방언 조사

실제 조사에 사용하였던 항목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언 조사에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2.1. 향후 조사에서 사용 가능 항목

방언 연구는 전술한 것처럼 지역 방언 연구에서 사회 방언 연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국립국어원의 조사에서 활용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향후 방언 연구에 사용될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음운/음성 관련

음운 체계(단모음 '애/애', '위'), 고모음화/음장, 초분절운소 장단/성조, 'ㄴ' 첨가, 올라우트, 유기음화, 유음화와 'ㄹ > ㄴ'의 변화, 모음조화, 자음군단순화, '여 > 이'의 변화, 마찰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 평파 열음화에 의한 재구조화, '에 > 이'의 변화에 의한 재구조화, 이중모음 '의'의 변화, 'ㄹ' 말음 용언의 활용

음성/음운의 체계에 관한 항목들은 전통적으로 지역 방언에서 꾸준히 조사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항목은 지역적 변이에 더하여 사회적 변이를 찾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적 조사의 입장에서든 이러한 지역적 음운 체계 관련 조사는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 어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예로 들 수 있다.

• 어휘 관련

고유어 소멸, 방언의 확산, 어휘의 혼동, 경어, 표준어의 확산, 방언의 인지, 줄임말, 순화어, 외래어, 호칭, 지칭, 의미 확장, 관용어, 속담

예전에는 지역 간 이동이나 인적 교류로 인하여 방언이 확산되었다면 현대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방언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휘 관련 항목의 경우 사회언어학적 속성 중에서 세대 변인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이므로, 세대 간의 소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은 통시적 조사가 필요하며 향후 언어 정책 반영과 수립에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제시할 문법 관련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방언의 잔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문법 관련

경어법, 의문형 어미, 부정의문문, 부정문, 명령문

이미 일본에서는 살아남기 쉬운 방언 중 문말 표현, 정도부사 등을 공통어화가 어려운 항목이라고 검증한 바가 있고, 이는 우리 국어에서도 전통 방언 형태가 비교적 보존되기 쉬운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적 방언 차이를 제일 잘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음운, 어휘, 문법과 같이 분절적 단위로 연구하고 살펴보는 방언이 아닌 담화 단위나 언어행동 측면에서 지역 방언의 차이와 사회 방언의 차이를 살펴보기도 한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그 대표적 예이다.

• 담화 관련

감사 표현에 대한 응답, 사과 표현에 대한 응답, 칭찬 표현에 대한 응답, 요청/부탁 표현, 요청/부탁에 대한 거절 표현, 호의에 대한 거절 표현, 가정에서의 압존법 표현, 직장에서의 압존법 표현, 불만 표현, 승낙 표현, 호출 표현, 비확정적 표현

이상의 항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언어의식과 언어행동을 교차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3. 방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방언에 대한 인식과 방언의 위상은 세월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때로는 방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또 어느 시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감내하면서도 여태껏 유지되어 왔으며 그 위상은 조금씩 변모해 가고 있다.

표 1 일본의 방언 사회사

	근세 ¹⁾ 이전	근대	현대	향후
방언의 사용 상황	활발		쇠퇴	더욱 쇠퇴
공통어화	/	개시	진행	더욱 진행
방언의 사회적 평가	낮음	극단적으로 낮음	높음	
방언 관련 활동	/	박멸 운동	보호 및 보급 활동	문화재적 보호
방언의 성격	시스템(체계)		스타일	
방언의 기능	사고 내용 전달		상대방 확인 및 발화 태도 표명	

[표 1]과 같이 고바야시(2004)는 일본 현대 방언의 특징을 방언의 사용 상황, 공통어화 진행 정도, 방언 관련 사회적 평가와 활동, 방언의 성격과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방언의 위상에 관한 종합적 설명은 우리나라 방언이 처해 있는 입장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근대 이전에는 방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았지만, 공통어 주류 사회가 되면서 방언은 하나의 표현 스타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화 자체는 공통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정 표현이나 문말 표현 등에 방언을 섞어 가면서 화제를 이끌어 간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현대 방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통어와 방언을 섞어 말하면서 상대방과의 심적 거리를 가깝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표현(스타일)의 일부였던 방언이 ‘공통어’라는 옷에 어울리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 가고 있다. 옷에 브로치를 달아 놓으면 사람들의 시선은 옷이 아니라 브로치에 집중된다. 이렇게 관심을 끌거나 주위를 환기하는 효과

1) 일본사에서는 오닌·분메이의 난(應仁·文明の亂) 이후 무로마치(室町) 시대 말기부터 전국(全國) 시대를 거쳐 에도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근세라고 부르며, 제2차세계대전 이전을 근대, 그 이후를 현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대 구분이다.

가 있는 방언 액세서리화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고바야시는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언은 공통어처럼 지역 사회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시대를 지나,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단계까지 뛰어넘어, 현재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액세서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본의 방언 상황을 현대 한국 사회의 방언에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방언의 모습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는 공통어를 말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방언의 쇠퇴는 어떻게 보면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지만 방언 액세서리화 또는 방언 코스프레²⁾(코스튬 플레이)는 이러한 시대 방언의 희소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표 2 한국의 방언 사회상

	6·25 이전	현재	향후
방언의 사용 상황	활발	쇠퇴	더욱 쇠퇴
공통어화	/	진행	더욱 진행
방언의 사회적 평가	낮음	보통	
방언 관련 활동	/	보호 활동 개시	
방언의 성격	시스템(체계)	스타일	
방언의 기능	사고 내용 전달	상대방 확인 및 발화 태도 표명	

바뀌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는 공통어가 방언을 응원하고 이끌어 주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방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방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연구로서 충분히 매력적이다.

2) 다나가 유카리는 방언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를 그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불구하고 그 지역 방언을 흉내 내거나 말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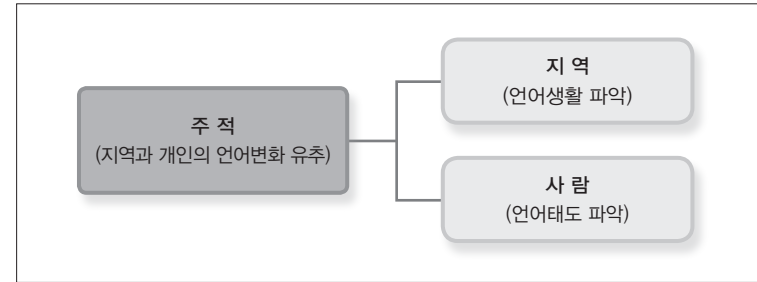
2.4. 향후 방언에 대한 연구 방향

현대는 ‘세대, 계층, 성별, 지역’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에 따라 분화가 이루어진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요소가 해당 사회의 분화에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해당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 사회의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세대 간의 언어 차를 확인하고 불통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 조사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가 지난 60년간 네 차례나 실시한 쓰루오카 지역의 공통어화 조사처럼 한국에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과 사회 방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만약 이와 유사한 조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적 조사를 하는 것이 알맞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신도시 개발이나 행정 구획의 변경 등으로 타 방언의 영향에 노출된 지역 또는 그러한 사람을 선정하여 언어 형성기 이후 언어 습득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사 때 20대였던 사람이 40대가 되었을 때, 만일 사람이 언어 형성기 이후 언어를 습득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것이라면 40대 사람들의 방언과 공통어 사용 비율은 1차 조사의 20대 사람의 비율과 동일해야 한다. 이러한 추적조사는 같은 사람을 다시 조사해야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일 인물에 대해 동일한 조사를 반복 실시하는 것을 패널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패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개인의 언어 변화를 알아 볼 수 있고, ‘사람은 언어 형성기를 지나도 말을 습득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다. 이로써 한 사람 일생의 언어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그림처럼 한 지역의 언어 생활,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 속 언어 생활의 변화를 기록하고 파악함으로써 언어 변화의 모델



[그림 2] 언어 변화 조사 모델

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멸 위기 방언의 보존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유네스코는 2009년에 세계 2,500개의 언어(방언)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500여 언어를 포함한 많은 수의 방언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방언을 담당할 젊은 화자가 없다는 점과 젊은 화자는 존재하지만 해당 방언이 후대에까지 계승되지 않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방언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심어진 세대는 방언으로 자기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손자들과 이야기할 때 방언을 사용하지 않고 공통어를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후대에는 방언을 접할 기회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에는 방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태껏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방언이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방

언과 액세서리로서의 방언(고바야시, 2004), 방언 코스프레(다나카, 2012) 등에서와 같이 새롭게 주목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와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환영받을 만하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방언과 액세서리로서의 방언은 엄연히 질이 다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방언 상품, 방언 간판 등은 반짝 인기의 산물이거나 상술에 의해 만들어진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연구자도 존재한다. 물론 만약 전국의 언어경관이 공통어로 통일되어 획일화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풍부한 지역 문화의 소실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속성과 결합한 지역 방언의 다양성 조사야말로 풍성한 지역 문화와 세대 간의 소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언에 대한 관심도 환영받을 만하다고 본다.

향후 방언 연구는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역 방언 등의 치밀한 기록과 더불어 사회적 요인을 결합한 종합적 방언 조사가 바람직하며 누군가 해야 한다면 국립국어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문헌

- 강정희(2003), 방언 변화와 방언 연구의 방향, 《한국어학》 21, 1~15.
- 곽충구(2002), 방언 연구사, 《국어국문학회 50년》(국어국문학회 엮음), 태학사.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
- 양민호 외(2015), 《대도시 지역사회 방언 조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승철 외(2014), 《방언의 조사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태학사.
- 고바야시 다카시(2010), 지역어 조사·보존의 외국 사례 - 일본의 경우 -, 《새국어생활》, 제20권 제3호·가을, 57~72.
- 고바야시 다카시(2004), 액세서리로서 현대방언, 《사회언어과학》, 제7권 제1호, 105~107. / 小林隆(2004), アクセサリーとしての現代方言, 《社会言語科学》, 第7巻 第1号, 105~107.
- 기베 노부코(2015) 방언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일본방언연구회, 제100회 연구발표회 창립 50주년 기념기획 기념 심포지엄 요지문. / 木部陽子(2015), 方言研究の過去・現在・未来, 日本方言研究会第100回研究発表会, 創立50周年記念企画 記念シンポジウム予稿集.
- 다나카 유카리(2011), 《방언 코스프레의 시대》, 이와나미서점 / 田中ゆかり(2011), 「方言コスプレ」の時代, 岩波書店.
- 이노우에 후미오 저, 김덕호 외(2015), 《경제언어학 언어, 방언, 경어》, 역락.